

REPORT



제목 : 기형도 문학관 답사 보고서

수강과목 : 융합적 사고를 위한 명저 탐색

담당교수 : 최정숙 교수님

학 과 : 신소재공학과

학 번 : 20181777

이 름 : 김다은

제출일자 : 2021.05.31

목차

1. 기형도 문학관

- 1-1 기형도 문학관을 선정한 이유
- 1-2 기형도 문학관의 위치 및 안내
- 1-3 기형도 문학관은 어떤 곳인가?

2. 시인 기형도

- 2-1 시인 기형도의 생애
- 2-2 작가연보
- 2-3 작품연보

3. 기형도 시인의 작품

- 3-1 빈집
- 3-2 엄마걱정
- 3-3 오래된 서적

4. 기형도 문학관 방문 소감 및 방문 사진

1. 기형도 문학관

1-1 기형도 문학관을 선정한 이유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 가량 가면 항상 지나치는 정류장 있다. 바로 '기형도 문학관·황용사'이다. 기형도 문학관이라는 단독 명칭이 아닌 두 장소 모두 불리는 이유 때문인지 부끄럽지만 이곳이 기형도 시인의 아름다운 공간임을 이번 답사보고서 공지 사항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형도라는 시인에 대해서 알고 싶었으며, 기형도 시인이 만들어낸 작품을 알고자 하여 직접 방문, 답사를 하게 되었다.

1-2 기형도 문학관의 위치 및 안내



관람시간 : 화요일 ~ 일요일

전시실	도서공간
9:00 ~ 18:00 (3월 ~ 10월)	9:00 ~ 17:00
9:00 ~ 17:00 (11월 ~ 2월)	

관람료 : 무료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268 기형도 문학관

전화번호 : 02) 2621 - 8860 팩스 : 02) 897 - 3678

홈페이지 : www.kihyungdo.co.kr

오는 길

① 버스(기형도문학관, 황룡사 정류장 이용)

일반버스 : 2,3, 3-1, 11-2, 12, 17

간선버스 : 505

지선버스 : 5627, 5633

② 지하철

광명역(1호선) : 3, 3-1, 12, 17, 505, 5627, 5633 버스이용

철산역(7호선) 2번 출구 : 2, 3, 12, 17 버스 이용

석수역(1호선) 1번 출구 : 1-3 버스 이용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1번 출구 : 5627, 505 버스 이용

③ 자가용

이케아 광명역점에서 광명시청 방향 500m

주차 : 기형도 문학관 50m / 문학관 제 2 주차장 이용

1-3 기형도 문학관은 어떤 곳인가?

기형도 문학관은 시인이 유년기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았던 광명시 소하동에 2017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2018년 3월 경기도 제 1호 공립 문학관으로 등록되었다.

기형도 문학관의 전시실은 '시인 기형도'를 시작으로 시인의 일생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하나 - 유년의 윷목' 과 '이야기 둘 - 은백양의 숲', '이야기 셋 - 저녁 정거장' 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야기와 이야기 가운데에는 시인의 대표작 「안개」, 「빈집」을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표현한 '안개의 강', '빈집' 전기가 있으며 '우리 곁의 시' 구역에서는 대표 시를 필사하고, 들을 수 있다.



① 시인 기형도

기형도의 삶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조감도가 펼쳐져 있으며, 작품 발표 연도 및 시인의 생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② 이야기 하나 유년의 윗목

시인의 유년 시절을 중심으로 꾸며진 공간으로 당시의 추억이 담긴 물건과 관련 시편으로 구성되어있다.

③ 안개의 강

그의 시를 입체적인 영상으로 표현했다. 관념이 아닌 시인의 통찰과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그려낸 등단작인 「안개」를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한 편의 시를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감각적인 공간이다.

④ 이야기 둘 백양의 숲

문학청년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시기이다. 그야말로 ‘청춘’의 시기이다. 끊임없이 대학 문학상에 응모하며 시를 쓰고자 했던 노력을 알 수 있다. 시뿐만 아니라 콩트와 산문, 소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했던 흔적이 보인다.

⑤ 이야기 셋 저녁 정거장

등단 이후 ‘시운동’ 동인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문단활동과 당시 시인이 신문기자로 일했던 일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⑥ 빈집

그동안의 상처와 절망, 이별의 아픔을 봉인하는 장소이다. 아무 것도 없이 떠나는 자의 외로움과 막막함이 담겨 있다. “사랑을 잃고” 시인은 ‘쓰는 자’가 되기를 선언한다.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고, 비움으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빈 공간에 비춰지는 영상을 통해 고요한 마음으로 시를 느끼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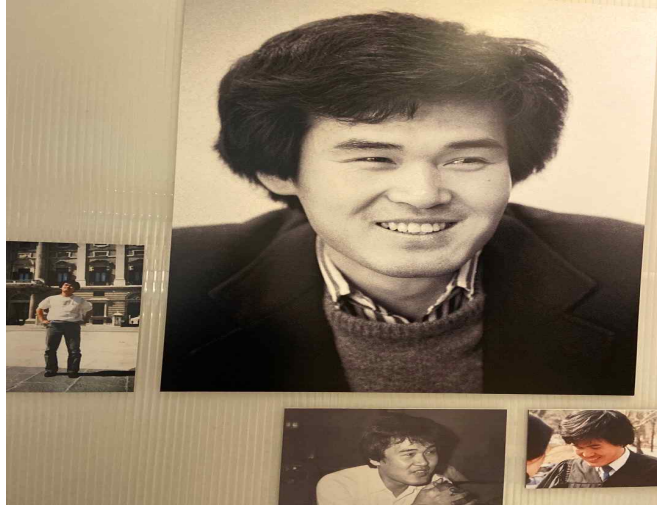
⑦ 더 넓게 더 멀리

시인을 추억하는 지인들의 인터뷰와 평문을 만날 수 있다. 필사체험과 함께 후배 시인들이 낭송한 기형도 시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기형도문학관 개관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그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비전을 공유해 보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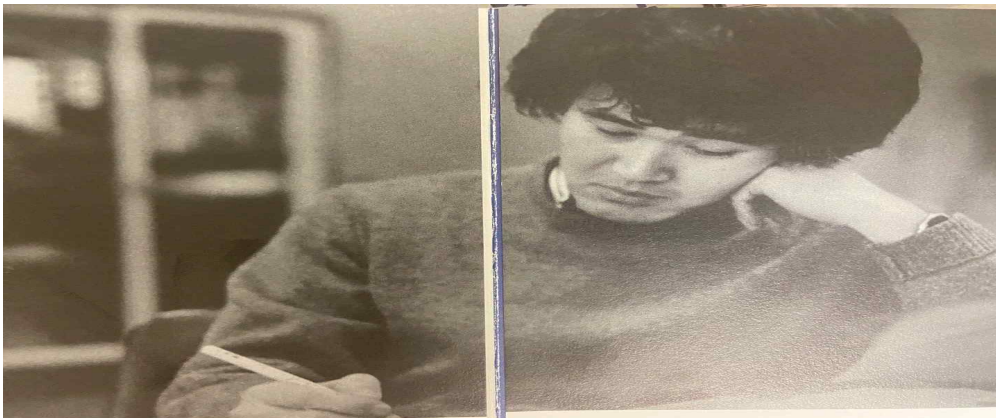
⑧ 기획 전시실 사진으로 보는 기형도

생전 시인의 모습과 소하동에 위치했던 옛집의 사진, 노트에 그린 캐리커처 등을 볼 수 있다.

2. 시인 기형도



2-1 시인 기형도의 생애



시인 기형도는 1960년 3월 13일(음력 2월 16일) 경기도 용진군 송림면 연평리 392번지에서 아버지 기우민과 어머니 장옥순 사이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1964년 경기도 시흥군으로 이사해 서면 일직리 706-1 (현 광명시)에서 타계할 때까지 살았다.

어릴 때부터 책읽는 수준이 남달랐고 노래와 그림에도 소질을 보였다. 서울의 시흥초등학교·신림중학교·중앙고등학교로 통학하는 동안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고 다양한 예능 활동으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한편으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게전체가 가난하게 살게 된 일, 바로 위 누나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일, 안개가 많이 끼는 안양천이라는 주변 환경 등은 시인의 내면에 깊이 체화되었다.

1979년 연세대학교 정법대학에 입학하고 나중에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지만 대학 생활은

주로 '연세문학회'와 더불어 했다.

캠퍼스에서 합평과 토론을 이어가며 암울한 1980년대를 이겨냈다. 1981년 방위병으로 입대, 근무지인 안양지역의 '수리시' 동인에 참여했다. 이때 초기작 여러 편을 창작했다. 복학하고 부지런히 작품을 써서 기성문단에 투고하던 중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안개」가 당선되었다.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의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며 '시운동' 동인을 비롯해 많은 선후배와 교류하였다.

시집 발간을 준비하던 1989년 3월 7일 새벽, 종로의 심야 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뇌졸중. 3월 9일,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 같은 해 5월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이 출간되었다. (1960.3.13. ~ 1989.3.7.)

2-2 작가연보

1960

3월 13일 경기도 용진군 연평리 392번지에서 아버지 기우민과 어머니 장옥순 사이의 막내 아들로 태어남

1964

경기도 시흥군 서면(현 광명시)으로 이사

1967

시흥 초등학교 입학

1968

부친이 직접 지은 집에서 가족이 살게 됨

1973

신림중학교 입학

1975

바로 위 누이의 죽음. 이 무렵부터 시를 쓰기 시작함

1976

신림중학교 졸업. 중앙고등학교 입학

1977

중앙고등학교 교내 중창단 '목동' 2기의 바리톤으로 활동

1979

연세대학교 정법대 정법계열 입학
연세문학회 가입
교내 신문 <연세춘추>의 '박영준문학상'에 소설 영하의 바람 가작 입선

1980

정치외교학과 선택
교시 연세 의 백양 문학상에 시 고독 가작 입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상계엄령 확대 선포, 언론 통폐합 조치로 여러 일간지와 문학과 지성 등 잡지 강제 폐간, 이때를 전후로 '시운동' 등 소집단 문학활동이 활발히 전개됨

1981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군 복무, 안양 지역 '수리시' 동인에 참여

1982

전역

1983

3학년 복학
<연세춘추>의 운동주 문학상에 시 식목제 당선
신춘문예에 응모하여 최종심에 오르내림

1984

중앙 일보 입사

1985

<동아일보>신춘문예 시 안개 당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7

문학부 기자 활동 중 유럽 여행
6월 민주 항쟁

1988

'시운동' 동인의 합평회에 적극 참여, 홀로 여행

1989

3월 7일 새벽 종로의 파고다극장에서 타계, 천주교 수원교구 공원묘지에 안장
5월 유고 시집 「입 속의 검은 잎」 출간

1990

1주기. 추모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 출간

1994

5주기. 추모 문집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출간

1999

10주기. 「기형도 전집」 출간

2009

20주기. 추모문집 「정거장에서의 충고」 출간

2017

경기도 광명시에 기형도 문학관 건립

2018

문학 진흥법 기반 경기도 제 1호 공립 문학관 등록

2-3 작품연보

① 시집 ‘ 입 속의 검은 잎 ’ (문학과지성사, 1989) 수록작품

발표작	
1985년	「안개」, 「전문가」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 「10월」 「늙은 사람」 「이 겨울의 어두운 창문」 「백야」 「밤눈」 「오래된 서적」, 「어느 푸른 저녁」
1986년	「위험한 가계·1969」 「조치원」 「집시의 시집」 「바람은 그대 쪽으로」 「포도밭 묘지 1」 「포도밭 묘지 2」 「숲으로 된 성벽」
1987년	「나리 나리 개나리」 「식목제」 「오후 4시의 희망」 「여행자」 「장밋빛 인생」

1988년	「진눈깨비」 「죽은 구름」 「추억에 대한 경멸」 「흔해빠진 독서」 「노인들」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물 속의 사막」 「바람의 집—겨울 판화 1」 「삼촌의 죽음—겨울 판화 4」 「너무 큰 등받이의자—겨울 판화 7」 「정거장에서의 충고」 「가는 비 온다」 「기억할 만한 지나침」
1989년	「성탄목—겨울 판화 3」 「그 집 앞」 「빈집」 「질투는 나의 힘」 「가수는 입을 다무네」 「대학 시절」 「나쁘게 말하다」 「입 속의 검은 잎」 「그날」 「홀린 사람」
미발표작	
「병」 「나무공」 「사강리」 「폐광촌」 「폭풍의 언덕」 「비가 2」 「도시의 눈—겨울 판화 2」 「쥐불놀이—겨울 판화 5」 「램프와 빵—겨울 판화 6」 「소리1」 「종이달」 「소리의 뼈」 「우리 동네 목사님」 「나의 플래시 속으로 들어온 개」 「봄날은 간다」 「엄마 걱정」	

② 추모 문집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문학과지성사, 1994)에 처음 수록된 작품

「달밤」 「겨울·눈(눈)·나무·숲」 「시인 2—첫날의 시인」 「가을에」
「허수아비—누가 빈 들을 지키는가」 「잎·눈(눈)·바람 속에서」 「새벽이 오는 방법」
「쓸쓸하고 장엄한 노래여」 「388번 종점」 「노을」 「비가— 좁은 문」 「우중의 나이—모든 슬픔은 논리적으로 규명되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긴 겨울의 통로를 비집고 걸어갔다」
「레코오드판에서 바늘이 튀어오르듯이」 「도르시를 위하여—유년에게 쓴 편지 1」 「가을 무덤」

③ ‘기형도 전집’(문학과지성사, 1999)에 처음 수록된 작품

「껍질」 「귀가」 「수채화」 「팬터마임」 「풀」 「꽃」
「교환수」 「시인 1」 「아이야 어디서 너는」 「고독의 깊이」 「약속」 「겨울, 우리들의 도시」
「거리에서」 「어느 날」 「이 쓸쓸함은……」
「쓸쓸하고 장엄한 노래여 2」 「얼음의 빛—겨울 판화」 「제대병」(1982. 8), 「희망」 「아버지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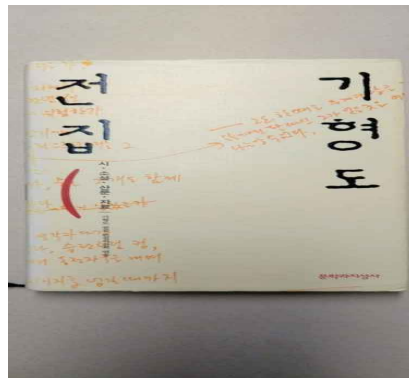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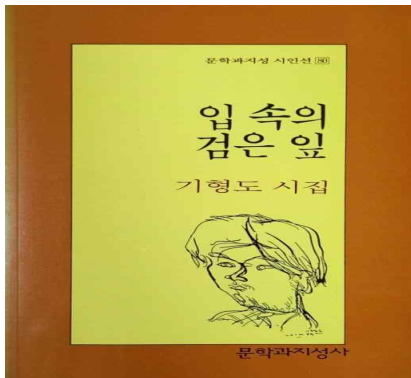
④ 기형도문학관 개관 기념 '기형도 전집(특별 한정판)' (문학과지성사, 2017)에 처음 수록된 작품

- 새로 찾아낸 미발표 시

「껍질」, 「귀가」, 「수채화」, 「팬터마임」, 「희망」, 「아버지의 사진」, 「풀」, 「꽃」, 「교환수」, 「시인 1」, 「아이야 어디서 너는」, 「고독의 깊이」, 「약속」, 「겨울, 우리들의 도시」, 「거리에서」, 「어느 날」, 「이 쓸쓸함은……」, 「쓸쓸하고 장엄한 노래여 2」, 「얼음의 빛-겨울 판화」, 「제대병」

⑤ 기형도 30주기 기념 기형도 시전집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문학과지성사, 2019)

기형도의 유고 시집 『입속의 검은 잎』(문학과지성사, 1989)에 묶인 시들과 10주기 추모문집 『기형도 전집』(문학과지성사, 1999)에 수록된 미발표 시들 전편을 한데 모은 시전집



3. 기형도 시인의 작품 ①

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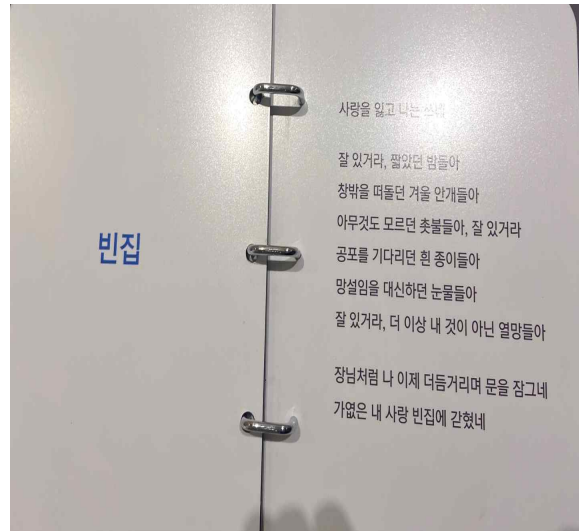
기형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짝꿍이던 밤들이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이,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이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이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이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빈집」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기형도의 시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를 드러내고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난한 집안 환경과 아픈 아버지, 장사하는 어머니, 직장을 다니는 누이 등 어두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의 시 전반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의 슬픈 사랑에서 벗어나려는 눈물겨운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러나 화자는 실패한 사랑에 대한 연민을 보임으로써 고통스러운 추억과의 결별에 실패하고 만다. 이별의 아픔과 혼자 남은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빈집에 갇힌 사랑’이라는 이미지로 노래하고 있는 시로 결국 이 시는 사랑의 대상을 잃고 극도의 상실감에 시달리던 화자가 모든 것을 잃은 피폐한 영혼을 지니게 되었음을 상징적 기법으로 토로하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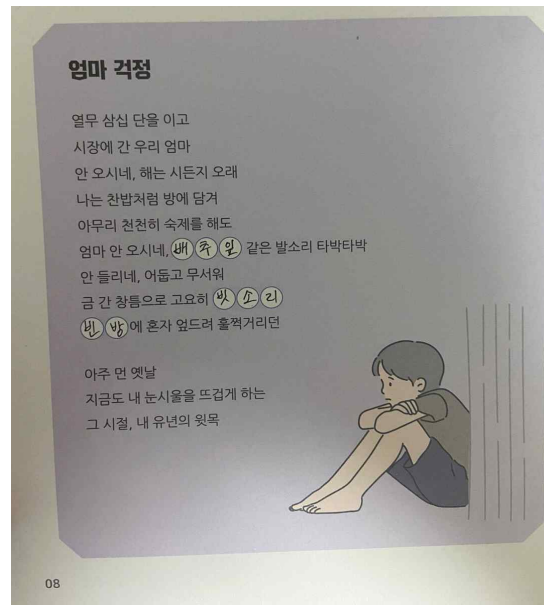
3. 기형도 시인의 작품 ②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엄마 걱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기형도 시인의 시들은 개인사에 담긴 아픔을 자전적으로 풀어낸 시가 많다. 무를 팔러간 어머니를 배고픈 아이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어조는 서정적이다. 가난한 아버지, 그의 치유될 길 없는 병과 위태로운 어머니, 그녀의 삶을 위한 발버둥, 그리고 부모들과 서로들에게 소외된 상황들이 “찬밥처럼 방에 담겨”,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는 아이들과 그들의 배고픔으로 채워져 있다. 당시의 그는 그것을 무서움,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나, 세월이 흘러 그것을 그리움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여전히 외로움은 그의 내부 깊숙한 곳에 뿌리박혀 있다.

3. 기형도 시인의 작품 ③

오래된 서적

기형도

내가 살아온 것은 거의
기적적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곰팡이 피어
나는 어둡고 축축한 세계에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질서

속에서, 텅 빈 희망 속에서
어찌 스스로의 일생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분주히
몇몇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기능을
넘겨보며 서적을 훑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너무 쉽게 살았다고
말한다, 좀더 두꺼운 추억이 필요하다는

사실, 완전을 위해서라면 두께가
문제겠는가? 나는 여러 번 장소를 옮기며
살았지만
죽음은 생각도 못했다, 나의 경력은

출생뿐이었으므로, 왜냐하면
두려움이 나의 속성이며
미래가 나의 과거이므로
나는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용기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보라

나를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나를 떠나갔다, 나의 경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
펼쳐볼 것인가, 하지만 그 경우
그들은 거짓을 논할 자격이 없다
거짓과 참됨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꿈꾸어야 한다, 단
한 줄일 수도 있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오래된 서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작품의 제목인 ‘오래된 서적’에서 서적은 화자 자신을 비유한 시어로 화자는 자신을 서적에 비유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가 한 구석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모두에게 외면 받는 책과 같은 모습은 화자의 지난 삶과 같다. 어둡고 축축한 곳에 놓여 화자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단절된 삶 속에서 곰팡이까지 생긴 채 텅빈 희망 없이 살았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화자는 자신의 지난 삶과 다가 올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삶을 기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런 현실을 버티며 살아온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호응하여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제 그런 삶마저 부정하는 화자의 비관적 인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적,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4. 기형도 문학관 방문 소감

집과 가까운 거리여서 기형도 문학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었다.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문학관이라는 곳이 나와는 별개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으며, 나의 관심 밖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융합적 사고를 위한 명저 탐색 과제를 위한 문학관 방문 이후, 과거의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전에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김유정 문학촌을 좀 더 깊고 신중한 마음으로 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감도 들었다. 기형도 문학관 문 앞에 들어섰을 때 시인 기형도의 사진을 보게 되었으며, 시인의 살아왔던 시대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몽클함이 느껴졌다. 시인 기형도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아름다운 사람이 떠나간 빈자리가 나의 슬픔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그의 삶에 대한 아픔이 그의 작품들을 읽는 내내 느껴졌다.

문학관 내부에는 그의 시들이 많은 텍스트로 존재했고, 음성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었다. 텍스트만의 매력이 있었지만, 글을 통해 단순히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읽어주는 사람을 시각적으로 바라보며 청각적인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다양한 목소리로 그의 시를 들을 수 있었었기에 그때마다 느낌이 새로웠다. 시인 기형도의 작품들은 어둡고 우울했다. 그는 삶에 대한 쓸쓸함을 이야기했으며, 시가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시인 기형도의 작품 중 엄마 걱정이라는 시는 과거의 나에게 감동을 준 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작가가 시인 기형도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번 문학관 방문을 통해 시인 기형도의 여러 시들을 마음 속 깊이 새겼으며, 그 중 기억나는 문구가 하나 있다. 시인 기형도의 「오래된 서적」 중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이는 또 한 번 나를 울렸다. 시인 기형도의 낙관적 희망을 상실한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다. 또한 그의 아픈 세월이 느껴졌다. 그 상황 속 아픈 감정을 담아 실은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내 뇌리를 넘어서 가슴 속 깊이 박혔다. 아팠지만,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시인 기형도를 기억하며 이번 과제를 끝마친다.

4-2 방문 사진

